

민족 제노사이드의 기억과 시적 애도의 정치성

- 간도참변과 간토대진재를 중심으로

곽명숙*

국문초록

1920년대 전반기에 일어난 간도참변과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은 식민지 권력이 민족을 단위로 자행한 조직적 폭력으로, 그 희생자들은 제국의 법과 언어 안에서 애도될 수 없었다. 본 논문은 이 애도 불가능한 죽음들을 언어화한 식민지 시기와 해방공간의 시편들을, ‘벌거벗은 생명’ 개념과 ‘애도 가능성’ 이론을 준거로 발화조건을 달리하는 세 층위에서 살펴보았다. 식민 권력의 검열이 미치지 않는 상해 망명지의 시가는 희생자들을 호명함으로써 제국의 담론에 기록되지 않는 죽음들에 언어적 현존을 부여하였다. 간토대진재의 식민지 내부의 문학적 재현은 검열이라는 외적 불가능성과 희생자에게 가해진 프레임 속에서 굴절되었다. 해방 공간에서 이루어진 소급적 애도는 25년 전의 죽음들을 공론장으로 소환하고, 학살을 식민 지배 구조의 귀결로 규정함으로써 애도를 정치적 비판의 언어로 전환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이 시편들이 애도 불가능한 자들을 애도 가능한 존재로 호명하는 정치적 언어 행위였음을 밝힌다.

주제어: 제노사이드, 벌거벗은 생명, 애도가능성, 간도참변, 간토대진재, 소급적 애도,

반-프레이밍, 이광수, 김동환, 양주동, 설정식

* 아주대학교 교수(국어국문학전공)

1. 서론

1920년대 전반기는 식민지 조선 민족에게 전례 없는 집단적 죽음의 시대였다. 1920년 10월, 일본 육군과 간도 일본 영사관 경찰은 만주 간도 일대를 조직적으로 유린하며 수천 명의 조선인을 학살하였다. 이른바 간도참변이었다. 3년 후인 1923년 9월, 대지진의 혼란 속에서 일본 군경과 자경단은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를 빌미로 도쿄 일원의 조선인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였다.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 사건이었다. 두 사건은 지리적·시간적 맥락을 달리하지만, 식민지 권력이 민족을 단위로 삼아 자행한 조직적 폭력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동일한 기원을 공유한다.¹⁾ 그럼에도 이 죽음들은 공식적으로 애도되지 못하였다. 죽은 자들은 이름을 박탈당하였고, 그 죽음은 제국의 법과 언어 안에서 셀 수 없는 것, 기록될 수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식민지 치하의 조선어 매체는 검열과 탄압으로 인해 이 사건들을 온전히 공론화할 수 없었으며, 제국의 공식 담론은 학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축소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문학은 예민한 애도의 언어로 기능하였다. 그것들은 각기 다른 시공간적 맥락에 위치하면서도, 민족적 제노사이드에 의한 죽음을 언어화하고자 하는 공통된 충동을 내장하고 있다.

제노사이드(genocide)라는 용어는 민족, 인종을 뜻하는 그리스어 *genos* (γένος)와 살인, 살해를 뜻하는 *-cide*(라틴어 *-cidium*)의 합성어로서 보통 집단학살(mass murder) 혹은 대량학살과 혼용되지만, 이 용어를 창시한 라파엘 램킨(Raphael Lemkin)이 의도한 것은 “한 국민이나 한 민족 집단 ethnic group에 대한 파괴”를 개념화하고자 한 것이다.²⁾ 집단학살은 제노

1)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한 집단 학살 사건으로 동학농민군, 의병, 3·1운동, 러시아 연해주지역 4월 참변, 경신참변(간도참변),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제노사이드로 다룬 연구가 있다.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편, 『제노사이드와 한국근대』, 경인문화사, 2009. 본고에서는 시 문학으로 형상화된 경우와 관련된 제노사이드를 다루었기에 간도참변과 간토대지진을 대상으로 하며, 3·1운동과 관련된 시문학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었기에 제외한다.

2) 최호근, 『제노사이드: 학살과 은폐의 역사』, 책세상, 2005, 22~24쪽. 1944년 램킨이 정의한 제노사이드는 “어떤 집단을 절멸할 목적에서 그 집단 구성원들의 생활에서

사이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 한 현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제노사이드는 단순한 물리적 대량 학살을 의미하지 않으며, 민간인 집단에 대한 폭력적 파괴 행위가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³⁾ 본고에서 사용하는 민족 제노사이드는 희생자 집단이 개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민족적 귀속성 자체를 이유로 조직적으로 학살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⁴⁾

본 논문은 이 시편들을 분석함으로써 식민지기 민족 제노사이드의 문학적 재현이 지닌 정치적 함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식민지 조선인의 존재론적 위상은 아감벤의 ‘벌거벗은 생명’으로 설명될 수 있다.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됨으로써 역설적으로 법의 내부에 포획되는 ‘호모 사케르(homo sacer)’는 죽여도 살해로 기록되지 않는 생명, 즉 제의적 가치도 법적 인격도 박탈된 순수한 생물학적 존재를 가리킨다.⁵⁾ 식민지 법 질서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토대들을 파괴하기 위해 기도되는 다양한 행위들로 이루어진 공조 가능한 계획”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제노사이드는 피지배 민족을 파멸시키거나 영구적으로 무력화하는 ‘외세의 점령 체제’와 깊이 연관이 있다. 제노사이드가 20세기 특정 독재 정권의 예외적인 폭력이 아니라 식민지 개척과 제국주의 확장 과정에 내재된 속성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일본 군대의 침략전쟁으로 발발한 제노사이드의 예는 중국 뤄순 학살과 간도 조선인 학살, 난징 대학살, 태평양전쟁기 일본 국민에 대한 학살을 포함할 수 있다. 서민교, 『근대 일본의 침략전쟁과 제노사이드』, 동북아역사재단, 2023.

- 3) 강성현은 제노사이드의 정의와 범위, 메커니즘을 법적 차원을 넘어 사회학적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이 책에서 크게 동의하고 있는 사회학자 마틴 쇼는 사회 갈등의 유형 중 하나로 제노사이드를 재정의하고 별도로 제노사이드적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노사이드 행위는 무장 권력 조직들이 민간인 사회 집단을 적으로 다루거나, 무장 권력 조직들이 그 집단들의 성원으로 간주한 개인들에 대해 상해와 폭력, 강제력을 이용해 그 집단들이 실제 가지고 있거나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적 힘을 파괴하려는 행위이다.” 강성현, 『다시, 제노사이드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24, 214쪽.
- 4) 위의 책, 151~152쪽. 에쓰노사이드(ethnocide)라는 용어가 민족 제노사이드에 가까운 용어이다. 그러나 현재 문화에 대한 파괴만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강성현은 이 용법에 대해 반대하여, 램킨이 소개했던 본래 정의에서 물리적 파괴와 함께 문화적 파괴 모두를 포함했던 점을 강조한다.
- 5)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은 『호모 사케르』(1995)에서 서구 정치의 숨은 토대로서 ‘주권 권력(sovverign power)’과 ‘벌거벗은 생명(bare life)’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다.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박진우 역, 새물결, 2008, 155~232쪽.

내에서 조선인은 형식적으로는 제국 신민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법의 보호 바깥에 방치된 별거벗은 생명으로서 언제든지 폐기 가능한 존재로 처리되었다. 간도와 도쿄 일원에서의 조선인 학살은 이 구조가 물리적 폭력으로 현실화된 극단적 국면이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한 시적 형상화는 그들을 사회적으로 가시화된 죽음의 자리로 옮겨놓으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 이행 가능성과 정치적 함의를 버틀러의 ‘애도 가능성(grievability)’ 이론으로 읽고자 한다. 애도 가능한 삶과 애도 불가능한 삶을 분할하는 이 프레임은, 누구의 삶이 ‘삶’으로 인정받는가를 결정하는 인식론적·정치적 기제로 작동한다. 버틀러에 따르면, 공적 영역에서 수행되는 애도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죽음의 정치적 가시성을 생산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애도의 실천은 그 자체로 권력에 대한 저항이 될 수 있다.⁶⁾

아감벤이 주권 권력의 구조와 그것이 생산하는 예외 상태에 집중한다면, 버틀러는 그 예외 상태에서 생산된 죽음의 인식 가능성과 불가능성, 애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문제로 이동시킨다. 이 시각은 검열과 억압의 구조 속에서 학살의 희생자들을 애도하고자 했던 식민지 문학의 정치적 행위성을 독해하는 데 핵심적인 준거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식민지 시기 학살의 시적 재현이 단순한 감정적 토로나 민족주의적 호소를 넘어서 애도 불가능한 자들을 애도 가능한 존재로 호명하려는 정치적 언어 행위였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간도참변에 관한 역사학적 연구는 재만 조선인의 독립운동사와 관련하여 상당한 축적을 이루었으나, 이를 문학 텍스트와 연계하여 분석하는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시가 작품을 남긴 이광수에 대한 연구는 그의 친일 전향이라는 후기 행적으로 인해 초기 상해 시절의 민족주의적 문학 실천이 충분히 조명받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독립

6)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모든 죽음이 동등하게 애도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특정한 죽음이 공적 애도의 대상이 되는 반면, 또 다른 죽음은 그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권력이 생산한 ‘프레임(frame)’의 효과라고 말한다. 주디스 버틀러, 『전쟁의 프레임들: 삶의 평등한 애도가능성을 향하여』, 한정라 역, 한울아카데미, 2023, 20~27쪽.

신문』 수록 시편들에 대한 집중적 분석은 특히 미진하다.⁷⁾ 간토대진재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 활발하게 일어나 김동환의 서사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었다. 끝으로 해방 공간이라는 열린 장에서 간토대진재를 형상화한 설정식의 시에 대한 조명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선행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공백을 매우면서, 각각의 작품을 민족 제노사이드와 애도의 정치성이라는 통합적 시각 아래 재배치하고자 한다.

2. 간도참변의 기억과 검열 바깥 망명지에서의 애도

1920년 10월 간도참변⁸⁾은 일본군이 독립군 토벌을 명목으로 간도 일대 조선인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으로, 그 규모와 잔혹함에서 제노사이드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이었다. 3·1운동 이후 활발해진 만주지역 독립군이 위협적으로 성장하고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일제의 경제심을 고조시키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은 민간인이 다수인 조선인 마을을 습격해 철저히 불태우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살해했다.

7) 상해판 『독립신문』에 수록된 시가에 대한 논의는 이동순의 연구를 통해 전모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동순, 「상해판 독립신문 수록 시작품의 분석」, 『민족시의 정신사』, 창작과비평사, 1996. 이후 『독립신문』 시가 연구는 이광수, 주요한 등 주요 문인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졌으며, 독립신문 자체의 미디어 배치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나 비문인의 시가도 다룬 다음 논문도 주목할 만하다. 정우택, 「상해판 독립신문의 미디어 전략과 시가의 배치」, 『한국시학연구』 59, 한국시학회, 2019. 김영범, 「임시정부 간행 『독립신문』의 비문인 시가 연구」, 『한국시학연구』 63, 한국시학회, 2020. 광명숙의 연구는 간도참변에 대한 ‘애도’를 언급한 바 있으나, 애도의 정치적 함의보다는 망명 전후한 이광수의 내적 고뇌와 관련된 연속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광명숙, 「상해 망명 시절 이광수의 시가 연구」, 『춘원연구학보』 16, 춘원연구학회, 2019. 그 이후에 제출된 연구도 이광수 개인의 정치적 행보에 더 초점을 두었다. 임수만, 「『독립신문』 수록 이광수의 시 연구」, 『청람어문교육』 103, 청람어문교육학회, 2025.

8) 『독립신문』(1920.12.18.)의 보도는 피학살자를 “삼천 명 이상”으로 기록하였고, 현재 학계에서는 2,500~3,000명 이상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세운, 「간도참변(경신참변)의 실상과 역사적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 2005, 1~42쪽 참조.

10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 달여 동안 3,469명의 희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3, 4개월 동안 자행된 학살로 그 희생자는 보다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간도는 일제의 식민 지배 권력이 법적 질서를 정지시키고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예외공간⁹⁾이었으며, 그 안에서 조선인 민간인들은 형식적으로는 제국 신민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된 채 언제든 폐기 가능한 ‘벌거벗은 생명’으로 처리되었다. 일본군은 실상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였고¹⁰⁾, 국내 민간지는 이 사건을 정면으로 보도하거나 애도할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임시정부가 위치해 있던 상해의 프랑스 조계지는, 일제 식민 권력의 예외 상태 바깥에 위치한 역(逆)-예외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식민 권력의 검열 프레임이 미치지 않는 이 공간에서, 제국의 언어 질서가 비가시화한 죽음들을 가시화하는 언어 행위가 가능하였다.¹¹⁾ 그러나 간도참변의 실상을 다룬 상해 『독립신문』의 시가는 유일하게 이광수의 시가만이 눈에 띈다. 『독립신문』에는 3·1운동과 애국열사에 대한 추모시와 각종 행사와 관련된 기념시들 위주로 시가가 편제되었지만, 간

9) ‘예외’의 어원은 ‘[[집어 내어]진excaptum’(밖에서 포획된ex-capere)이라는 의미를 상기시키며, 예외가 단순히 배제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것은 규칙의 정지라는 형태로 규칙과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예외 상태는 질서의 정지에서 비롯된 상황이다. 즉 ‘예외상태(state of exception)’란 주권 권력이 법을 정지시킴으로써 역설적으로 법의 힘을 극대화하는 상태, 즉 법의 바깥이 법의 내부에 포획되는 구조를 가리킨다. 그 안에 놓인 존재들은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된 채 주권 권력의 직접적인 폭력에 노출된 벌거벗은 생명으로 환원된다. 조르조 아감벤, 앞의 책, 60-70쪽.

10) 제노사이드의 메커니즘은 첫째 무장 권력 조직의 ‘조직화’ 단계, 둘째 민간인 사회 집단들에 대한 ‘타자화’ 단계, 셋째 파괴와 부정 단계, 넷째 대량 학살 사실의 부인 또는 공세적 정당화이다. 타자화 메커니즘은 경계짓기와 분류, 차별과 낙인, 상징화, 비인간화 등이 작동한다. 강성현, 앞의 책, 216-219쪽. 간도사변과 간도대진체에 희생된 조선인들은 “불령선인(不逞鮮人)”이라는 타자화의 대상이었고, 그들에 대한 학살은 철저히 은폐되었다.

11) 이광수가 간도사변처럼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전해 들은 이야기로 학살에 대한 추모의 시를 쓴 것으로 3·1운동과 관련된 시편들이 앞서 있었다. 『신한청년』 창간호(1919. 12.) 등에 수록된 시편들은 그러한 시적 애도 실천의 중요한 선행 사례이다. 3·1운동과 관련된 시가들의 양이 많고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있기에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신한청년』에 수록된 이광수 시가에 대한 분석은 다음 논문을 참조. 광명숙, 앞의 글, 54-60쪽.

도참변에 관한 시가는 보도 기사들과 함께 수록된 이광수의 3편의 시가가 거의 유일하다. 이광수는 <삼천의 원혼>, <저 바람소리>, <간도동포의 참상>을 한꺼번에 발표했을 만큼 간도참변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¹²⁾ 이 세 편은 『독립신문』 제87호(1920.12.18)의 1, 2, 3면에 차례대로 수록되어 애도와 관련되어 각각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二年十月之變에
無道한 倭兵의 손에
타 죽고 마자죽은 三千의怨魂아
너의 屍體를 무더줄이도 업고나
너희게 무슨 罪 잇스랴
亡國百姓으로 태어난 罪
못난 祖上네의 叱咤를 바다
冤痛고慘酷한 이슬이로고나
무엇으로 너희를 위로하나
아아가엿는 三千의怨魂아
눈물인들 무엇하며 슬픈노랜들
너희의 冤恨을 어이할것가
怨魂아! 怨魂아!
소리가되어 웨치고 피비가되어
꿈꾸는同胞네의 가슴에 뿌려라
너희피로 적신쌍에
太極旗를 세우라고
- <三千의怨魂>¹³⁾

12) 공임순은 이광수의 불명예와 오명을 안은 귀국을 두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조선의 전후 분열상을 새겨놓은 사적 경험과 공적 현실이 착종된 복합 사건으로 보며, 여기에 간도사변의 공포가 배후에 깔려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공임순, 「이광수의 3·1운동-「민족개조론」 「혁명가의 아내」의 연쇄와 굴절-이광수의 귀국 전/후와 「간도사변」의 편제하는 폭력」, 『춘원연구학보』, 춘원연구학회, 15, 2019.

13) 春園, <三千의怨魂> 상해판 『독립신문』 제87호, 1920. 12 .8. 1면.

이 시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三千의怨魂아”라는 직접적인 호명이다. 죽은 자를 이름 혹은 범주로 직접 호명하는 발화는 그 죽음을 언어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행적 행위이다. 원혼을 “너”라는 이인칭으로 호명하는 이 발화는, 제국의 공식 담론이 숫자나 통계로도 기록하지 않으려 한 죽음들에 언어적 현존을 부여한다. 이 호명은 단순한 수사적 장치가 아니라, 죽은 자들의 죽음이 죽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을 내포하는 언어 행위이다. 그러나 이 시는 동시에 애도의 근본적 불가능성을 직시한다. “너의 시체를 묻어줄 이도 없고나”라는 시행은 애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례조차 수행될 수 없는 상황을 탄식하고 있다. 아감벤의 언어로 말하자면, 호모 사케르로 처리된 자들은 죽어서도 적절한 매장-문화적·종교적 의례의 대상이 되는 죽음-을 허락받지 못한다. 시체조차 묻어줄 수 없는 이 상황은, 희생자들이 살아서 호모 사케르였던 것처럼 죽어서도 여전히 호모 사케르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제의적 의례를 받을 수 없는, 즉 “희생물로 바칠 수는 없지만 죽어도 되는 생명”¹⁴⁾이었던 것이다. “너희게 무슨 罪 잇스랴 / 亡國百姓으로 태어난 罪”라는 구절은 평범한 듯하나 이 죽음의 핵심적인 요인을 언급한다. 너희들은 ‘죄’가 없으면서도 죽임을 당한 존재들인데, 그 죽음이 정당화되는 유일한 근거는 너희들이 ‘망국 백성’으로 태어난 것, 즉 민족적 귀속성 자체이다. 이것은 호모 사케르의 구조에 나타나는 문제, 즉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폐기 가능한 존재로 규정되는 구조를 표출하고 있다. 화자의 “비분강개”는 단순한 감정 표출을 너머 이 구조적 폭력의 부당성을 언어로 고발한다.

나아가 눈물이나 슬픈 노래조차 그 원혼을 어이할 수 없다고 죽음 앞에서 무력해지는 언어와 시의 한계를 토로하고 있다. 이광수의 공적 애도는 「독립신문」이라는 공적 매체를 통해 간도 사변으로 인한 삼천 동포의 죽음을 애도 가능한 것으로 끌어들이지만, 동시에 그 죽음 앞에서는 언어 자체가 무력해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애도 불가능성을 직시한다는

14) 조르조 아감벤, 앞의 책, 175쪽.

점에서, 이 시는 단순한 감정적 토로를 넘어 애도의 조건 자체를 문제화하는 정치적 텍스트가 된다.

마지막 부분에서 원혼들은 단순한 애도의 대상을 넘어 능동적 주체로 전환된다. ‘원혼’을 다시 호명한 화자는 죽은 자들이 “소리가 되어 외치고”, “피비가 되어” 동포의 가슴에 뿌려지기를 촉구한다. 이것은 상실된 삶들이 현재의 정치적 행위를 위한 자원이 되는 양상¹⁵⁾을 비유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공적 애도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죽은 자들의 피로 적신 땅 위에 태극기를 세우리라는 다짐은, 애도를 독립운동의 정치적 의지로 전환하는 수행적 발화이다.

이광수의 또다른 시 <저 바람소리>(『독립신문』 제87호 2면)는 간도참변 관련 세 편 가운데 시적 구조가 가장 명료하게 조직된 작품이다.

저 바람소리!

長白山 밋헤는 불지를 말어라

집일코 혈벗은 五十萬 동포는

어이하란 말이나

저 바람소리!

인왕산밋헤는 불지를 말어라

鐵窗에 잠못이룬國士네의눈물은

어이하란 말이나

저 바람소리!

만주의 벌에는 불지를 말어라

눈속으로 쫓기는 가련한용사들은

어이하란 말이나

저 바람소리!

江南의 뉘썰닌 버들을 흔드니

15) 주디스 버틀러, 『위태로운 삶: 애도의 힘과 폭력』, 윤조원 역, 필로소픽, 2018. 48-50쪽.

피눈물에 늦기는 나의 가슴은
 어이하란 말이나
 - <저바람소리>¹⁶⁾

이 시는 각 연이 “저 바람소리!”로 시작하여, 특정 장소에 불지 말라는 간청과 “어이하란 말이나”라는 탄식으로 마무리되는 4행 구조의 연이 4번 반복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각 연에 등장하는 지명들—장백산(간도), 인왕산(경성), 만주, 강남(상해)—은 일제 강점 하 조선인의 이산된 삶의 공간 전체를 망라한다.¹⁷⁾ 그러나 이 지리적 언급은 단순히 종합하기 위한 열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취약성과 불가피한 이산(離散)을 공간적으로 형상화하는 시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연에 배치된 인물들을 보면, 1연의 “집없고 헐벗은 五十萬 동포”는 간도참변의 직접적 피해자들이고, 2연의 “鐵窓에 잠 못이룬 국사(國土)”는 식민지 조선에서 투옥된 독립운동가들이며, 3연의 “눈속으로 쫓기는 가련한 용사들”은 만주 별편을 유랑하는 독립군이다. 이 세 집단은 모두 ‘구조적으로 더 높은 취약성(pecarity)’¹⁸⁾에 처한 존재들이다. 이들은 제국의 법적 보호로부터 배제된 채 극도의 물리적 취약성, 즉 각각 추위, 감금, 추격에 노출되어 있다. “저 바람”이 이러한 존재들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폭력적 조건의 상징이며, 화자는 바람에게 “불지 말라”고 간청함으로써 그것이 완화되길 호소해 본다.

마지막 4연은 앞의 3연과 구조적으로 대응되지만 결정적으로 화자의 위치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피눈물에 느끼는 나의 가슴”을 통해 애도하는 주체의 위치가 전경화된다. 앞의 장소들이 동포, 국사,

16) 春園, <저바람소리>, 『독립신문』 제87호, 1920.12.18, 2면. 신문지면상으로는 연 사이의 간격이 넓지 않아 구분이 없어 보이지만, 동일한 시행의 대구 구조가 있고 어느 정도 벌어진 간격으로 미루어 보아 4개의 연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17) 광명숙, 앞의 글, 15~16쪽.

18) 버틀러에게 취약성(pecarity)이란 특정 집단이 정치적·사회적 조건에 의해 구조적으로 더 높은 위험과 폭력에 노출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개인의 자연적 조건이 아니라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배한 결과이다. 주디스 버틀러, 『전쟁의 프레임들』, 앞의 책, 49~52쪽.

용사들의 상황을 나열하며 드러내는 타자의 고통에 대한 대상화라면 마지막 연은 자신의 고통을 향하여 방향을 돌린 반성이다. 이 전환은 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버틀러는 타자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그것에 의해 영향받는 능력, 즉 타자의 고통에 의해 자신이 변형되는 경험, 공감이 윤리적 연대의 토대가 된다고 설명한다.¹⁹⁾ 화자는 상해라는 지리적으로 떨어진, 상대적으로 안전한 장소에서 동포들의 고통을 느끼고, 그것을 자신의 신체에 위치시킨다. 이 연대의 감각을 두고 감상적 자기 연민이나 “불안정한 패배주의의 한숨짓기”²⁰⁾로 비판한 것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시의 반복적 탄식은 애도 불가능한 죽음과 마주한 언어의 위기에 대한 인식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 이 사실 자체가 죽음들이 처한 구조적 폭력의 크기를 말해 준다.

3면에 수록된 세 번째 시 <간도동포의 참상(慘狀)>은 직접적으로 간도 참변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형상화하면서, 동시에 화자의 정치적 각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불쌍한 間島同胞들
 三千名이나 죽고
 數十年 피쌔흘려 지은집
 벌어들인 糧食도 다 일허버렸다
 尺雪이 싸힌 이 치운겨울에
 었더케나 살아들 가나
 변히 보고도 도와줄힘이 업는몸
 속절업시 가슴만 아프다
 아아 힘!
 웨 네게 힘이 업섯던고
 내게도 업섯던고
 아아 웨 너와내게 힘이업섯던고
 나라도 일코

19) 주디스 버틀러, 『위태로운 삶』, 앞의 책, 52~54쪽.

20) 이동순, 앞의 글, 159쪽.

기름진 故園의 福地를 켜나
 朔北에 살길을 찾던
 그 등지조차 일어버렸고나
 오늘밤은 江南도 차운데
 長白山 모진 바람이야
 으죽이나 치우랴
 아아 생각하는 間島의 同胞들
 - <간도동포의 참상>²¹⁾

이 시는 간도참변으로 인한 인명 피해, 물질적 파괴, 파괴 이후 처한 가혹한 자연 조건 등을 열거하며 구체적인 피해 양상과 실상을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해 간도 조선인들이 구축해 온 “수십 년 피흘려 지은” 삶의 기반에 축적된 오랜 노동과 정착의 역사를 환기하며, 그런 터전이 한순간에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것은 단순한 인명 피해를 넘어 이 학살이 한 공동체의 존립 기반 자체를 겨냥했음을 드러낸다.

앞선 시에서 애도하는 주체의 자리를 드러내며 반성의 시선으로 이동했다면 이 시에서 자기 비판의 성찰은 더 나아간다. “번히 보고도 도와줄 힘이 없는 몸 / 속절없이 가슴만 아프다”고 말하며 “아아 힘! / 왜 네게 힘이 없었던고 / 내게도 없었던고”라고 반복적으로 탄식한다. 지리적 거리에 불구하고 동포의 고통이 자신의 신체에 현존하는 감각은 타자의 고통이 자신의 것이 되는 윤리적 책임의 출발점이 되고 자기 반성의 형식이 된다. “아아 힘! / 왜 네게 힘이 없었던고 / 내게도 없었던고”라는 반복 구조는 단순한 감정적 강조가 아니라, 힘의 부재를 구조적으로 사유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나’는 간도 동포들을, ‘나’는 상해의 화자를 가리키지만, “너와 나에게 힘이 없었던고”라는 귀결은 이 무력함이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국가 주권의 박탈이라는 구조적 조건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발한다. 시의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오늘밤은 강남도 차운데 / 장백산 모진 바람이야 / 으죽이나 추우랴”라고 말한다. 상해의 추위와 간도의 혹

21) 春園, <間島同胞의慘狀>, 『독립신문』 제87호, 1920.12.18, 3면.

한을 연결하는 이 구절은 <저 바람소리>에서도 나타난 공간적 연대의 감각을 반복하며 정치적 연대의 감정적 토대를 확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광수의 간도참변 시편들이 지닌 정치적 의미는 그것이 생산된 공간적 조건과 분리될 수 없다. 식민 권력의 검열 프레임이 미치지 않는 상해였기에 애도불가능한 죽음을 애도하는 행위가 가능했다. 물론 상해 『독립신문』이 국내 일반 독자들에게 직접 도달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은 이광수의 시적 애도 실천이 지닌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지만, 이 시편들의 정치적 의미는 실제 독자의 범위로만 환원될 수 없다. 애도 불가능한 죽음들을 언어 안에 기록하고 보존하는 행위 자체가, 그 삶들이 존재하였고 그 죽음이 진정한 상실임을 소급적으로 주장하는 정치적 언어 행위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상해의 자료가 이광수 시편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망명지 전체의 경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망명지라는 발화 조건이 산출할 수 있었던 애도 형식의 한 사례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 시편들은 이광수의 이후 친일 행적으로 인해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였으나, 애도 불가능한 죽음들을 언어로 끌어들었다는 수행적 효과의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일제강점기 민족적 제노사이드에 대한 시적 애도의 한 가능성의 자리에 놓일 수 있다.

3. 간토대진재의 기억, 망명지와 검열 아래 굴절된 애도

1920년대 발생한 두 번째 민족 제노사이드 사건은 간토대진재이다. 간토대진재(關東大震災)는²²⁾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간토지방과 일부 지역에서 진도 7.9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사망자 10만 5천 여 명, 부상자 11만 5천여 명의 큰 피해를 입은 재난이었다.

22)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으로 오랫동안 표기되었지만, 본고에서는 일본 지명인 ‘관동’을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간토’로 표기하고, 지진이라는 자연현상과 재난이라는 문제를 포함하여 ‘진재(震災)’로 표기하는 관례를 따랐다.

문제는 이 지진으로 민심이 동요하자 일본 내무성이 계엄령을 선포하였는데, 이 혼란의 틈에 재외조선인들과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가 유포되며 대규모의 조선인 학살사태가 일어났다.²³⁾

학살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식민지 조선에 이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일본 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의 출판을 모두 금지시키고 사람들 간의 물리적 이동을 막는 조치 등 강력한 언론통제를 실시하였다.²⁴⁾

망명지였던 상해에서는 『독립신문』이 9월 4일 호위를 발행해 간토대진재와 재일 조선인 관련 보도를 하였다.²⁵⁾ 상해 임시정부는 9월 10일에 일본 외무성에 공식 항의문을 보내고 9월 27일 150여 명이 모여 추도회를 열었다. 그 뒤에도 큰 관심을 갖고 특파조사원을 보내 조선인들의 피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보도하는데, 이 자료는 학살된 조선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1923년 12월 5일자(제167호) 1면에 <一萬의 犠牲者!!!>라는 제목으로 각지에서 피살당한 인원 수는 6,661명으로 기록하고 그 가운데 상당수는 시체조차 찾지 못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²⁶⁾

12월 5일자 신문의 2면에는 국제 동향을 소개하며 <德國인이 目睹한 韓人慘殺事件>, <韓人虐殺에 대한 在美韓友蹶起> 등의 기사를 통해 간토대진재에 자행된 조선인 학살에 대한 관심을 알리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

23) 강덕상, 『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 역사비평사, 2005, 27~33쪽. 조선인학살 문제에 대한 姜德相의 저작들과 야마다 쇼지(山田昭次) 등의 자료집 등에 대한 소개, 일본 정부의 통계와 한국학계 연구에 대한 정리는 장세윤의 다음의 글을 참조. 장세윤,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에 대한 『독립신문』의 보도와 그 영향」, 『사림』 46, 수선사학회, 2013, 296~297쪽.

24) 보도를 실은 신문의 발간과 발매를 금지하고, 재해민들이 조선의 가족에게 보내는 개인적 우편을 검열했다. 이진희, 「관동대지진을 추도함-일본 제국의 ‘불령선인’과 추도의 정치학」, 박선경 역, 『아세아연구』 51(1), 아세아문제연구소, 2008, 63쪽.

25) 장세윤, 앞의 글, 301~302쪽. 이 호위가 국내로 발송했다가 일제 당국에 압수된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도 있다.

26) 12월 26일자(168호) 기사에는 독일인 박사의 증언에 따라 피살 조선인 총계가 무려 2만 1,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간토지방 거주 조선인 규모에 비해 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동경지진 당시 거류 중국인의 참살에 항의를 제출하였다는 소식과 함께, 일부 조사단이 도일하고 외교총장이 주중 일본 관리를 접견하여 요구사항을 제출하였다는 기사가 실려있다.²⁷⁾ 650명 이상의 중국인도 학살되었지만 조선인과 달리 베이징 정부는 강력하게 외교적 대응을 하였다.²⁸⁾ 중국 정부의 대응과 비교할 때 주권 없는 식민지 피지배민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 기사의 하단에는 11월 17일 밤에 개최된 ‘虐殺된 同胞를 爲하여 悵悵痛切追悼會’에 대한 보고와 추도문이 하단에 실려 있고 더불어 <추도가>가 수록되어 있다. 이 추도가는 4절과 후렴으로 되어 있고 추도식에서 창가와 같은 곡조로 불렀을 것으로 짐작된다.

1
 독사여호겸한원수/제죄로써넘은천벌/
 지다위틀맞은우리/참혹할사이웬일가
 후렴
 아프고도분하도다/원수에게죽은동포/
 하느님이무심하랴/갑돌날이멀지안소

2
 산도절고물도선대/누로해서건너갔나/
 찜흘리는구진목숨/요것까지째앗는가

3
 나그네집찬자리에/물귀어먹고맘다하여/
 애슬히던청년학도/될성부른싹을씩어

27) 「華僑虐殺에 對한 中國의 嚴重交涉」, 『독립신문』, 1923. 12. 5.(2면)

28) 간토대진재에서 희생된 조선인은 6,000명 이상, 중국인은 650명 이상, 그리고 10여 명의 일본 사회주의자들 학살당했다. 다음 논문에서는 조선인 학살사건 가해자의 판결 변화 사례를 들어 일본 사법부가 조선인 학살 가해자에게 과도하게 관대하였고 은폐의 필요가 있었던 점, 임시정부와 상해 교민단의 항의, 추도, 진상조사 활동 등 조직적인 대응이 있었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중국은 범인 처벌과 피해 배상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일본은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고 일방적으로 위자금 지불을 결정했으나 유야무야되었다. 김광열,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 시 학살된 한인과 중국인에 대한 사후조치」, 『동북아역사논총』 48, 동북아역사재단, 2015, 119~157쪽.

4

온갖소리들써우어/니를갈고막죽엿네/
저피방울쏘친곳에/바람맵고서리차아
- <추도가>²⁹⁾

일본은 ‘독사’와 ‘호랑이’를 겸한 원수라고 비유되고, 그들의 재난이 자신들의 죄로 받은 “천벌”인데 그 짓밟힘을 우리가 받는 참혹한 일이 일어났음을 말한다. 그 원수들은 낯선 땅에 가서 노동하던 목숨을 빼앗고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고학하던 청년 학도들의 “될성부른 싹”을 꺾어버렸다. “아프고도분하도다 / 원수에게죽은동포” “갑돌날이멀지안소”라는 후렴은 감정 표현을 넘어, 공개적 애도, 즉 누군가의 죽음을 공동체 앞에서 슬퍼하는 행위 자체를 보여주며, 죽은 자들이 살아 있는 생명이었다는 것을 재천명하고 원수에 대한 미래의 보복을 선언한다. 추도회에서 불린 이 노래는 따라서 조선인 학살 피해자들의 생명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의례이자 애도가능성을 창출한다.

그러나 조선 내에서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은 직접적으로 재현되기 극히 어려운 사건이었다. 국내 한글 매체들은 사건의 실상을 보도할 수 없었으며³⁰⁾ 문학적 형상화는 더욱 요원하였다.³¹⁾ 그러나 이 불가능성 속

29) 『독립신문』, 1923.12.05. 1면.

30)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는 오히려 “조선인 폭동”을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를 전면 에 게재하였다. 「強盜, 凌辱, 放火를 企劃-不良朝鮮人の 暴動은 如斯」, 『매일신보』, 1923. 9. 10. 3면. 간토대진재 당시 일본에서의 언론(통제)에 관한 연구는 다음 참조. 이연, 「관동대진재와 언론통제-조선인 학살사건과 보도통제를 중심으로」, 『언론학보』 27, 언론문화연구소, 1992. 『동아일보』 1923년 8월 3-5일자 기사를 비롯해 수많은 기사가 검열, 삭제되었다. 1923년 9월 20일 진재관련 ‘신문기사 게재 금지’를 해제했지만 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해서는 게재를 단호히 금지했다.

31) 김홍식은 당시 도쿄에 유학하던 문인의 유형을 나누고 간토대진재 체험의 직간접적인 문학적 형상화에 대해 선구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 김홍식, 「관동대진재와 한국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29, 한국현대문학회, 2009, 190~193쪽. 간토대진재 체험과 작가를 연관지은 최근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김도경, 「관동대진재의 기억과 서사」, 『어문학』 125, 한국어문학회, 2014, 297~316쪽. 이 논문에서는 ‘미담’의 방식을 통해 학살의 경험을 일상과 통합하려 한 서사와 트라우마로 인한 균열을 이야기한다. 그 외 역설적인 ‘부재증명’의 형태로 다룬 분석도 있다. 유승환, 「이광수 문학과 관동대진재-부재증명의 말하기와 민족적 적대의 징후들」, 『춘원연구학보』 27, 춘원연구학

에서 제한적인 형태의 추도는 존재하였다. 『개벽』 44호(1924.2)에는 도쿄의 한 조선인 희생자 추도회에서 불린 추도가가 익명으로 게재되었는데, 익명 처리와 ‘추도회 노래’라는 형식적 우회가 제한적 발화를 가능하게 한 조건이었다. 일본 내에서도 진재로 인한 복구외에도 대지진 1주년을 맞이하여 도쿄진재기념위원회는 기념관 수립 등 프로젝트에 착수하며 망자에 대한 추도에 관심을 가졌다. 학살피해자들에 대한 추도는 제국 내 다양한 갈등 양상의 복잡성을 반영하고 있었고, 제국의 담론 통제 공간이면서 의도되지 않았던 통제되지 않은 담론을 듣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장소이기도 했다.³²⁾ 이런 점에서 추도가는 단순한 슬픔의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국의 담론 통제를 벗어나려는 텍스트로 볼 수 있다.

슬프도다우리同胞아/半萬里異域에이웬일인가
平生의理想은一朝에피요/千年의勤勞는骸骨뿐이라
(후렴)
海深山高의(○○)의恨을/무슨말로써慰勞하리오
우리의理想이實現되는 날/荒廢한무덤에꽃이피리라
武藏野진달빛초이는곳/그대들의무덤이어데이든가
가을밤碧空에흐르는별은/그대들의冤魂이彷徨함인가
- <追悼歌(感動歌曲調)>³³⁾

위 <추도가>는 간토대진재가 일어난 이듬해 2월 도쿄의 한 ‘조선인 희생자 추도회’에서 부른 것으로, 단문기사³⁴⁾와 함께 수록되었다. 추도하는 주체와 추도의 대상인 죽은 ‘그대’를 함께 ‘우리’로 묶는 공동체의 합창 형식으로 이루어진 공적 추도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러한 추도가가 소개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에서 대진재의 혼란이 가라앉은 뒤에 일어난 추모의 흐름에 이어진 것이었다.³⁵⁾ 이 추도가도 ‘위로’를 목적으로 발화되고 있다.

회, 2023, 11~54쪽.

32) 이진희, 앞의 글, 92쪽.

33) <追悼歌>, 『개벽』 44, 1924. 2, 38쪽.

34) B生, 「東京에서」, 같은 곳.

그러나 武藏野(무사시노, 간토 평야에 속한 지명) 무덤에 묻힌 “원혼”의 방향은 잡재울 수 없고, 애도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일본 유학중이었다가 간토대진재를 직접 경험한 김동환(金東煥, 1901~1950 추정)의 작품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굴절된 재현이 존재한다.

아하, 냇날의 東京이어!

大地의우는소리-煙氣, 火焰, 피, 사람의反逆, - 그래서 屈從-發狂-哄笑-呼泣,

아하, 東京이어! 이러케 悽慘하게 人類의記憶을불살나버리는 이날을 想像
이나 하였던가.

歴史再造의 위대한한힘압해 우두두썌는 可憐한罹災의 市民을 그러나보았던가.³⁶⁾

폐허를 곡(哭)하더라는 제목의 시 <곡폐허(哭廢墟)>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도쿄를 호명하며 애도하는 시이다. 1연이 그에 대한 조사(弔辭)로서 찬란했던 과거의 근대 도시 문명이었던 ‘동경’을 부르며 전체가 장례의 어휘로 가득 차 있다. “문명의 몰락”으로 재난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는 끝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2연은 전환을 보여주는데, 지진 직후의 혼돈 상태를 파편화된 명사들과 이음줄(-)의 연속 속에서 나열한다. ‘연기, 화염, 피, 사람의 반역’과 ‘굴중, 발광, 홍소, 호읍’은 감각적 충격을 혼란스럽게 전달하려는 시도로 읽히는데³⁷⁾, 재난의 혼돈과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 역시 이성이 붕괴된 상태를 보여준다. 그 사이를 “그래서”로 연결한

35) 1924년 3월 16일 일본인, 중국인, 조선인 합동 추도식이 있었는데, 참석자들이 노동자들을 위한 노래를 불러, 경찰 탄압의 빌미가 될만큼 저항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한다. 이진희, 앞의 글, 73~75쪽. 그외 와세다 대학강당에서 열린 조선인들의 ‘관동진재 살해 동포 추도회’는 일본 정부의 강한 탄압을 받았고, 오사카 규탄대회도 노동자 중심으로 동료의 죽음을 추모하며 학살에 대한 규탄을 했다고 한다.

36) 김동환, <哭廢墟>, 『국경의 밤』, 한성도서, 1925, 18쪽.

37) 김홍식은 이 작품이 일방적인 발화법으로 일관하여 “그 기조가 위로나 격려보다 고유(告諭)나 계도의 성격이 더 농후하”며 사건의 실감 있는 형상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관념적 언어가 조선인 학살이라는 특수성을 그려내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무엇보다 검열과 이념 개입으로 절망과 공포 체험을 실감 있게 재현할 수 없었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김홍식, 앞의 글, 204~206쪽.

점이 모호하다. 후자의 행위들은 “사람의 반역”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다. 얼핏 보면 ‘사람의 반역’이 1연에서 말한 자연의 힘에 대해 거슬렀던 ‘문명’의 반역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재난 직후 일어난 조선인 학살의 폭력과 광적인 흥분을 암시하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굴중”은 힘의 차이 속에서 일어나는 굴복이고 “발광”은 비이성적인 정신 상태에 빠진 행동이다. 힘의 차이가 자연과 인간 사이의 것인지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날 일어난 “피, 사람의 반역”은 “인류의 기억”을 불살라버리는 ‘발광’이었던 것이다. 즉 “피”는 대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학살로 희생된 목숨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왜냐하면 파괴된 ‘문명’의 물질적 차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기억’은 인류라는 이성적 존재와 휴머니즘에 기반한 정신적 차원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지막 연의 “지나간 넷날을 갱환하는 오직 크다란 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가 애도하는 대상과 재건의 힘을 피식민자의 맥락에서 민족적 주체로 읽어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시의 한계이다. 조선인 학살이라는 특수한 폭력은 ‘문명의 몰락’이라는 보편적 언어 속에서 희석되고 굴절된다.³⁸⁾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단순히 시인 개인의 의식의 결함으로 환원될 수 없다. 재난을 “문명의 몰락”으로 프레이밍하고 “역사재조의 위대한 힘”이라고 승화시키는 이 시의 구조는 식민지 시인이 제국의 언어 질서 안에서 발화할 때 불가피하게 그들의 언어를 내면화한 제약을 보여준다.

한편 김동환의 서사시 『승천하는 청춘』(신문학사, 1925)은 시인의 간토대진재 체험과 수용소 체험을 직접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연구의 주목을 받았다. 그의 첫 서사시인 『국경의 밤』(한성도서, 1925)과 연작 관계라 볼 수 있는 이 작품은 총 7부 6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핵심 배경은 나라시노(習志野) 수용소이다.³⁹⁾ 이 작품에서 수용소 안의 조선인

38) 본고에서 ‘굴절’이란 식민지 조선인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시적 언어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검열, 발화 위치, 시간적 거리 등의 조건에 따라 그 형상이 변형되어 나타나는 현상 전반을 가리킨다.

들은 죽음과 삶 사이, 법과 법 밖 사이에 붙들린 존재이다.⁴⁰⁾ 이들은 법 권리나 시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예외상태에 처한 존재들이며, 대지진 속 학살에서 살아 남은 조선인들은 ‘별거벗은 생명’에 다름없었다.

이 작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시구문 밖 공동묘지에서 어린아이의 무덤을 찾는 여인 모습으로 프롤로그를 시작한다. 1부는 나라시노 수용소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군중 묘사가 나오고 2부와 3부는 수용소 내부에서 여인, 그녀의 병든 오빠, 그녀가 사랑하는 청년이 등장하며 주인공들의 만남과 연애, 오빠의 죽음과 연인의 체포가 그려진다. 4부에서 여주인공은 귀국하여 재혼하지만 혼전 임신이 발각되어 파경을 맞는다. 5부와 6부는 서울을 공간으로 하고 여인은 곤궁한 생활을 하며 투옥된 연인의 아이를 낳아 양육한다. 다시 이전 애인과 재회하지만 아이가 죽자 절망에 빠진다. 에필로그에서는 두 연인이 동반 투신자살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이 작품은 수용소 군중 묘사나 죽음의 이미지가 편재화되어 학살을 암유하고 있으니⁴¹⁾ 학살에 대한 고발은 찾아 보기 어렵고 현실에 대한 초월과 남녀의 사랑으로 도피한다.

동이 떠오른다

먼 동이 北漢山映樓를 뚫길가치 히멀금하게 비체며 차츰 차츰 티 오른다.
서울장안의온갖 생명을 춤추게 하느라고 저면동이

인간들도 世界의饗宴에 나갈 채림을하게하느라저새벽이

39) 학살에서 살아남은 조선인들은 지바현 나라시노의 이재민 수용소로 옮겨졌고, 이후에도 사상이 의심되는 조선인들은 선별되어 살해되었다.

40) 황호덕은 기존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한 <승천하는 청춘>을 <국경의 밤>과 연관관계로 재조명하며, 수용소의 사람들이 ‘생번(生蕃)→산송장(산주검)→생령(生靈)’의 순서로 규정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황호덕, 「재난과 이웃, 관동대진재에서 후쿠시마까지: 식민지와 수용소, 김동환의 <국경의 밤>과 <승천하는 청춘>을 단서로」, 『일본비평』 7, 서울대 일본연구소, 2012, 36~328쪽.

41) 권보드래는 김동환이 학살과 폭력을 고발하는 대신 대지진 경험을 “승고와 초월의 기회로 수렴시킨다”고 분석하였다. 권보드래, 「관동대지진, 소문과 증언과 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71, 한국현대문학학회, 2023, 212~216쪽. 이 논문에서는 대지진 살해의 기억이 압도적으로 충격적이었기에 식민지 시기 작가들이 제안한 ‘초월’이나 ‘연대’는 타협책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이 실패로 끝났을지라도 그 의미화 시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들의 눈압헤는
 사다리가 보인다 쌍우에 뿌리박은 기다란 사다리가
 사다리아래에는 고기가보인다 엉텡이살점 너분다리살점 두개골 오장육
 부가 屠殺場고완가치 쭉느러져
 몇萬개 몇 十萬斤이 우굴우굴 싸여져서 끌코있다
 둘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스러운 마음에눌니여
 『아하, 사다리가 보이노나
 뱃날의력사 뱃날의문명을 드리고선 사다리가우리의 過去, 朝鮮의 過去를
 드린
 하늘 한솥으로 버티여선 것이 보인다』⁴²⁾

(밑줄 강조-인용자)

위의 인용은 이 서사시의 결말부로, 동트는 새벽 이미지와 ‘사다리’의 상징이 중첩되며 죽음과 초월을 동시에 형상화한다. 새벽의 도래가 생명의 갱신을 예비하는 것으로 제시되지만, 곧바로 사다리 아래 고깃덩이들의 충격적인 비유가 등장한다. “엉텡이 살점, 너분다리 살점, 두개골, 오장육부”가 “도살장”처럼 쭉 늘어져 있는 이 이미지는 간토대진재와 그 이후 수용소에서 자행된 학살의 잔혹한 실상을 신체적 감각적 차원에서 암유한다. 몇 십만 근이라는 수량적 표현은 학살의 규모를 가시화하는 동시에, 인간의 신체가 무게와 수량으로 환산되는 비인간화의 상태, 즉 별거벗은 생명임을 극단적으로 형상화한다.

그러나 이 참혹한 이미지는 곧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스러운 마음”이라는 정화의 언어로 덮인다. 주목해야 할 것은 “뱃날의 역사, 뱃날의 문명을 디디고 선 사다리”라는 표현이다. ‘사다리’는 과거의 역사와 문명을 디딤돌 삼아 하늘로 향하는 초월의 통로로 제시되며, 앞서 살펴본 <곡폐하>에서 ‘역사재조’의 논리와 동일한 구조를 반복한다. 즉 학살로 점철된 역사가 승천을 위한 발판으로 추상화됨으로써, 구체적인 폭력의 희생자들은 다시 한번 비가시화된다. 그렇지만 이 초월의 지향에 깔려 있는 것

42) 김동환, 『승천하는 청춘』, 신문학사, 1925. 177쪽.

이 “우리의 과거”, “조선의 과거”라는 것은 구조적 폭력을 환기시키며, 참혹했던 대학살과 그 이후 파괴된 삶에 대한 굴절된 재현이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현실의 폭력에 맞서는 언어는 아니지만 그것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언어인 것이다.

전형적인 추도시의 형태를 띠고 국내에 발표된 시는 1930년대 발표된 양주동의 <무덤>이다. 양주동은 1921년에 와세다 예과에 입학하여 당시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으나 여름방학으로 귀성해 있던 경우였다.⁴³⁾ 간토 대진재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이와 관련된 회고의 시편들을 보기도물게 남겼다.⁴⁴⁾ 다음 시의 부기에 표기된 1925년은 그가 와세다대학 영문과에 진학하여 재도입한 시기였다.

아 몇사람이 내가슴속에서 죽어갔느냐,
아 몇사람이 내가슴 속에서 재되었느냐,
오 가신님이여, 내가슴속에 조고마한무덤을 만들고
길히 길히 잠드신 님이여.

(중략)

오 바람이 불도다, 비가오도다,
황량한 벌판우에 가슴속 빈인들우에,
오 봉분조차 묻혀진 헤일수업는 무덤이여.

그리하여 해마다 가을이되면 오 해마다 가을이되면,
최후의 심판날 아침과 갓치,
망령은 무덤속에 다시 눈을쓰도다,
망령은 가슴속에 다시 세월을 울도다.

(1925. 9. 東京서)⁴⁵⁾

43) 김홍식, 앞의 글, 191쪽.

44) 양주동의 다른 시 <惡禱>는 창작 시기가 ‘1923.12.’라고 적힌 상태로 『조선의 맥박』(1932)에 수록되었다. 이 작품도 시인의 도쿄체험으로 미루어 보아 간토대진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며 복수를 다짐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기도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

45) 양주동, <무덤>, 『조선문단』 13, 1925. 11.

위 시는 억울한 희생자를 애도하는 심정을 ‘아, 오’라는 감탄사를 반복하며 토로하고 있다. 정상적인 죽음에 따르는 무덤, 묘비, 장례와 같은 의례가 있겠지만 간토대진재로 학살된 조선인에게서는 그러한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에 시인은 그 애도불가능성을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들이어 애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가슴속 빈들 위에” 그 가슴속에서도 “봉분조차 무너진 해일 수 없는” 상태의 무덤뿐이다. 충분한 애도를 받을 수 없는 망령들은 “최후의 심판날 아침같이” 매년 눈을 뜨고 운다고 시인은 말한다. 역사적 정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심판을 기다리는 망령들의 울음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개인의 통곡이 아닌 “떼울음”이라는 집단적 원한으로의 확장은 이 죽음이 민족적 비극임을 암시한다. 작품이 씌어진 장소가 ‘東京’이라는 점은 가해의 현장에서, 침묵을 강요하는 공간에서 발화한다는 점에서 기억하기의 저항성을 내포한다.

일제 강점기에 국내에서 간토대진재를 다룬 시편들은 학살을 직접 명명하지 못하고 ‘폐허’와 ‘희생’, ‘울음’이라는 완곡한 언어 속에 사건을 굴절시킬 수밖에 없었다. 해방 이전 간토대진재의 문학적 재현을 제약한 것은 총독부의 검열만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학살의 가해자가 식민지 조선인을 ‘불령선인’으로 프레이밍한 제국의 인종주의적 담론에 의해 구조화되었기 때문에, 이 프레이밍에 정면으로 맞서는 문학적 언어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식민지 문단의 언어적 조건 안에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4. 해방 공간에서 검열 이후의 소급적 애도

1945년 8월 15일의 해방은 그때까지 불가능하였던 언어들, 학살의 직접적 명명, 희생자에 대한 공적 애도가 비로소 가능해지는 새로운 시간적·언어적 조건을 열었다. 그러나 이 해방이 식민지기의 모든 죽음들에 대한 온전한 애도의 회복을 자동적으로 의미하지는 않았다. 해방 공간은 미군정과 좌우 이념 대립, 신탁통치 논쟁과 단독정부 수립 논쟁 등으로

극도로 분열된 정치적 지형 위에 서 있었다. 이 혼란과 대립의 와중에서, 식민지기의 죽음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애도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한 추모의 문제가 아니라 해방된 민족 공동체의 정치적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와 직결된 쟁점이었다.⁴⁶⁾ 버틀러에 따르면, 공적 애도의 정체성은 현재의 죽음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억압된 죽음들을 소급하여 애도 가능한 것으로 재규정하는 행위에도 적용된다.⁴⁷⁾ 해방 공간에서 식민지 시기의 학살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문학적 행위는 이 소급적 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례이다.

해방 공간에 나온 설정식(薛貞植, 1912~1953)의 <진혼곡(鎮魂曲)>은 소급적 애도의 정치성을 가장 복잡하고 심층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는 시편이다. 설정식은 해방 이후 왕성한 창작 활동과 함께 탁월한 영어 실력으로 미군정청에서 근무하면서도 조선문학가동맹의 외국문학위원장을 맡은 이념적 복합성을 지닌 문인이었다. <진혼곡>은 그의 제3시집 『제신의 분노』(1948)에 수록된 작품으로, 부제로 “동경진재에 학살당한 원혼들에게(東京震災에虐殺당한怨魂들에게)”를 달고 있어,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시임을 명시하고 있다. 해방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 죽음들이 시적 언어 안으로 소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시가 지닌 소급적 애도의 정치적 의미를 웅변한다. 이 소급적 애도는 세 가지 차원의 정치성을 동시에 내포한다. 첫째, 그것은 식민지기에 은폐되고 부인된 죽음들을 해방된 공론장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이다. 둘째, 그것은 이 죽음들의 원인—식민 지배 권력의 구조적 폭력—을 명명하고 고발하는 행위이다. 셋째, 그것은 이 죽음들을 해방된 민족 공동체의 기원적 상처로 정립함으로써, 새로운 민족 공동체의 윤리적 토대를 구성하는 행위이다.

<진혼곡>의 가장 두드러진 형식적 특징은 “조국땅이 좁아서”와 “조국

46) 해방 후 간토대진재를 가장 먼저 다룬 것은 설정식의 시 <진혼곡>이었고, 이후 소설 작품들이 제출된다. 그외 소설 작품에 대한 연구는 다음 논문을 참조. 김지윤, 「해방 이후 한국문학과 관동대진재의 기억」, 『춘원연구학보』 27, 춘원연구학회, 2023.

47) 주디스 버틀러, 『위태로운 삶』, 앞의 책, 45~60쪽.

주권을 팔아먹은 자가 있어”라는 두 구절의 반복이다. 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祖國땅이 좁아서
 干渴地를 파야될 까닭이 없었다
 祖國땅이 좁아서
 멀미나는 玄海灘을 건널 까닭이 없었다
 祖國땅이 좁아서
 隅田川 시궁창에서 널조각을 주울 까닭이 없었다⁴⁸⁾

“조국땅이 좁아서”라는 구절이 세 번 반복되지만, 이 반복은 곧 “~할 까닭이 없었다”라는 부정의 술어와 결합함으로써, 표면적 명제와 이면적 주장 사이의 아이러니적 긴장을 생산한다. 간척지, 현해탄 도항, 도쿄 일용노동(우전천의 널조각)은 모두 식민지 조선인이 겪었던 실제 삶의 조건들이다. 그런데 시는 이것들이 “조국땅이 좁아서”가 아님을, 즉 자연적·지리적 필연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것은 달리 말해 인위적·정치적 원인에 의한 것임을 반복하여 주장하는 것이고, 그 인위적 원인은 곧 “조국 주권을 팔아먹은 자가 있어”라는 구절로 명시된다. 희생된 이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구조적으로 더 높은 취약성(*precarity*)에 처하게 된 것은 정치적으로 생산된 조건 때문임을 말해준다. 설정식의 시는 바로 이 논리를 시적 언어로 재차 강조한다. 조선인들이 현해탄을 건너 도쿄의 빈민 지역에서 극도의 취약성 속에 살아가게 된 것은 “조국땅이 좁아서”라는 자연적 필연이 아니라 “조국 주권을 팔아먹은 자가 있어”, 즉 정치적 구조의 결과라는 것이다. 동시에 조선인들을 법적 보호 없이 폐기 가능할 별거벗은 생명으로 만든 구조적 원인임을 이 시는 정확히 지목한다. 이 구절은 시 전체에 걸쳐 주문(呪文)처럼 되풀이된다.

다만 祖國 主權이

48) 설정식, <鎮魂曲>, 『諸神의 憤怒』, 신학사, 1948, 84-85쪽.

祖國 主權을 팔아먹은者가 있어
 祖國이 干潟地로 밀려나간 것이었다
 祖國 主權을 팔아먹은者가 있어
 그 族屬이 游浪을 業으로 삼았었다⁴⁹⁾

이 반복의 수사학적 기능은 명확하다. 그것은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을 우발적 재난이 아닌 식민 지배의 구조적 논리의 귀결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시는 단순히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이 왜 발생하였는가의 구조적 원인을 반복적으로 고발함으로써, 애도를 정치적 비판의 언어로 전환한다.

그리고 시의 중심에는 ‘元甫(원보)’와 ‘順(순)’이라는 두 인물이 등장한다. 이 기호는 일제 강점기 도일한 조선인 노동자의 전형적 이름으로서 구체적인 개인의 삶과 보편적 구조의 희생자를 동시에 지시한다. 이 두 인물의 삶의 조건은 버틀러가 말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순이는 가난 때문에 팔려왔다. 애비를 책망할 자가 없을 만큼 조국은 무력했다.

그러므로 子息을 낳아 기르는 것도
 業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
 順의 몸을 五十圓에 팔았은들
 애비를 나무랄者 없이 되리만큼
 祖國은 어디로 가버려

元甫와 順이는
 천을 걸친 者들이나
 그들의 買辦人들의
 一日 三食 그 밖에 모든 체통을 떠나 차라리
 피와 같이

49) 위의 책, 85쪽.

正直한것을 原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地動은 太初같이 泰然한 한개
 變化일 뿐이었다
짐승같이 살아가는 元甫와 順에게는
 災難이 좀 클 뿐이었다⁵⁰⁾

(밑줄 강조_인용자)

“순의 봄”을 오십 원에 팔았고 그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선인 여성의 성적 착취를 포함하여 짐승과 같은 생활을 강요당하는 식민지 최하층의 삶의 조건을 말하고 있다. 이 “짐승들의 생활”을 발생시킨 것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구조적 조건(“조국은 어디로 가버려”)임을 명확히 한다. “짐승같이 살아”간다는 수식은 호모 사케르(벌거벗은 생명)를 비오스(정치적·사회적 삶)가 박탈된 채 조에(순수한 생물학적 생명)만 남은 존재로 규정하는 맥락과 일치한다.⁵¹⁾ 원보와 순이가 “짐승같이 살아가”게 된 것은 ‘조국 주권’의 박탈, 즉 정치적 주체로서의 지위 박탈의 결과이다. 매판인이나 정직한 것을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지진은 자연의 변화일 뿐이지만 벌거벗은 생명인 이들에게 재난은 더 크게 닥친다고 시인은 말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난보다 무서운 것이 왔다”는 전환 구절이 등장한다.

瓦斯管이 破裂되는 것을
 元甫와 順이는 責任져야 하였고
 斷水, 延燒, 地崩, 毒 그리고
 저 원수들이
 代代로 물려받은 「恐怖症」까지도
 朝鮮사람들의 罪였다⁵²⁾

50) 위의 책, 86~88쪽.

51) 조르조 아감벤, 앞의 책, 115~121쪽. 조에(zoe, ζωή)는 생물학적인 생명으로서 단순히 살아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가리키고, 비오스(bios, βίος)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고유한 공동체 안에서 자격을 갖춘 존재로서 영위하는 삶을 가리킨다.

이 구절은 간토대진재 학살의 메커니즘—유언비어—을 시적으로 보여 준다. 가스관 파열, 단수, 연소, 지붕 붕괴, 독(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까지 모두 “조선사람들의 죄”로 귀속되었다는 것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저 원수들이 / 대대로 물려받은 「공포증」”이라는 표현이다. 이것은 학살의 심리적 기제로 작동한, 조선인에 대한 인종적 공포와 혐오를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처럼 갖고 있던 일본 민간인들의 심리를 지목하는 것이다. 유언비어가 그토록 신속하게 확산되고 학살이 그토록 광범위하게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인을 위험한 타자로 규정하는 프레임이 이미 깊이 내면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구조적 취약성에 놓인 벌거벗은 생명들이 희생된다. 시의 절정부에서는 원보의 죽음과 순의 죽음을 형상화한다.

祖國 主權을 사간 買辦人들은 竹槍을 들었다 / 진실로 짐승보다 좀 빠른 族
屬이었다 / 죽은 고기 찍어 올리듯하여 / 아 元甫의 옆구리는 祖國 主權이 없
 어서 뚫어졌다 / 祖國땅이 좁아서 / 順이가 또한 죽을 곳이 없는 것이 아니
 었다 / 工場 가마솥 끓는 물 속이 아니라도 / 順이는 얼마든지 묻힐 곳이 있
 었다 / 祖國이 좁아서가 아니라 / 祖國 主權을 팔아먹은者가 있어 / 元甫와 順
 이와 또 四萬生靈은 / 짐승의 밥이 된 것이었다⁵²⁾

(밑줄 강조_인용자)

“元甫의 옆구리는 조국 주권이 없어서 뚫어졌다”는 구절은 수사학으로 도달한 이 시의 절정이다. 신체적 폭력—“죽창”으로 “옆구리”가 뚫리는—과 정치적 조건—“조국 주권이 없어서”—을 단일한 인과의 사슬로 연결하는 이 구절은, 학살을 구조적 폭력의 귀결로 규정하는 이 시의 핵심 논증을 가장 압축된 형태로 수행한다. 주권의 부재가 신체의 뚫림으로 직결된다는 이 등식은, ‘벌거벗은 생명’이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언제든 폐기될 수 있는 순수한 생물학적 존재라는 것을 시적으로 현실화한

52) 설정식, 앞의 책, 89쪽

53) 위의 책, 91~92쪽.

다. 이 장면에 선행하는 구절⁵⁴⁾은 폭력적인 죽음의 현장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 죽음 직전의 내면 묘사로 기능한다. 시궁창의 와이어 위에 매달린 채 화염 속에 죽어가면서 원보와 순이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것은 이미 일본 자본(迫間農場, 不二農場)에 수탈당한 고향 땅이다.⁵⁵⁾ 구체적인 고유명사의 삽입은 이 시가 추상적 정치 선언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재한 수탈의 기억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장치이기도 하다. 고향 땅의 수탈과 생명의 수탈이라는 이 이중의 수탈은 두 인물의 죽음이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식민 지배 체제의 구조적 귀결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순이의 죽음을 형상화된 부분도 “순이가 또한 죽을 곳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 공장 가마솥 끓는 물 속이 아니라도 / 순이는 얼마든지 묻힐 곳이 있었다”라는 대목에서 수사학적인 날카로움을 보여준다. 시는 좁은 ‘공장 가마솥 속’에서 순이가 비참하게 죽은 것이 ‘조국땅이 좁아서’가 아니라, 주권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묻힐 곳’이 있었다고 역설한다. 이 역설은 참혹하고 비인간적인 죽음의 장소를 부각시킨다.

마지막 구절은 이 시 전체의 수사학적 정치적 귀결을 보여준다. 원보, 순이와 나란히 “사만생령”을 언급한 것은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 희생자의 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숫자를 명시적으로 호명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한 희생자 수와의 극적인 대비 속에서, 이 “사만”이라는 숫자는 제국의 프레임이 은폐한 죽음들의 규모를 소급하여 드러내는 반-프레임의 수행이다.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된 것이었다”는 마지막 구절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읽힌다. 표면적으로는 죽창으로 찢려 죽은 희생자들이 짐승처럼 처리되었다는 의미가

54) “隅田川 찢긴 시궁창에 / 녹슬은 한 가닥 와이어에 매어달려 / 火焰 위에 검푸르게 달은 / 잃어진 조국 하늘 밑에 / 迫間農場이 들어선 南田과 / 不二農場이 마름하는 고향 北畝를 생각하였다.” 위의 책, 90쪽.

55) 박간농장(迫間農場)과 불이농장(不二農場)은 실제 일제 강점기 한국에서 운영된 일본인 소유 농장으로, 조선인 소작농을 착취한 식민지 수탈의 대표적 기관이다. 박간농장은 경남 김해 일대, 불이농장은 전북 군산 일대에서 대규모 농경지를 소유하고 운영하였다. 불이농업의 간석지 소유와 전국 농장별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하지연, 「일제하 일본인 지주회사의 농장 관리 조직을 통해 본 식민지 지주제의 성격」, 『한국문화연구』 28, 한국문화연구원, 2015, 43-51쪽.

다. 그러나 이 시의 맥락에서 ‘짐승’은 두 방향으로 작동한다. 원보와 순이가 ‘짐승처럼’ 살도록 강제된 식민지적 조건이 있었고, 그들을 학살한 자들이 ‘짐승보다 좀 빠른 족속’, 즉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폭력의 주체로 묘사된다. 이러한 의미의 역전은 누가 진정으로 ‘짐승’의 수준으로 행동하였는가를 되묻는다.

그런데 “매판인”이 등장하는 구절은 “정치적 의도가 과도하게 폭주하여” 비극의 원죄를 민족 내부로 귀착시켜 버림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재현에 실패하고 자학사관의 함정에 빠지는 결과를 빚었다”⁵⁶⁾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다. 해방공간에서 좌우대립의 이념적 프레임은 조선인학살 사건의 실제 가해자를 시야에서 지워버리고 민족 내부의 프레임으로 귀착시키는 문제점을 동반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인용에 밀줄로 강조한 “조국 주권을 사간 매판인들은 죽창을 들었다”라는 구절을 잘 보면, 민족 내부의 매판자본가들이 아닌 조국 주권을 “사간” 자들을 지시하고 있고 그들이 ‘죽창’을 들고 학살을 저지른 것임을 명시한다. “짐승보다 좀 빠른 족속”은 그러므로 매판자본이 아닌 죽창을 들었던 학살의 주체들이다. 이 점에서 설정식이 겨냥하는 것이 일본 민족 전체에 대한 민족적 비난이나 감정적 분노가 아닌, 식민자본의 지배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타국과 타민족을 침략하는 제국주의 확장 과정에 대한 고발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 시는 전반적으로 일본 자본에 의해 내몰린 ‘간석지’와, 죽음의 순간 떠올린 고향 땅을 잠식한 일본 자본의 실명을 적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가해자로서의 식민지배자를 간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짐승의 밥이 된 것”이라는 마지막 구절은 가해자를 “짐승”으로 전도시킴으로써 식민지배 기간 동안 애도불가능했던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 가능한 죽음’으로 인정하는 최종적인 언어적 수행이다. 이 구절은 그들의 죽음의 부당성과 참혹함을 가장 직접적인 언어로 증언함으로써, 그 죽음들이 마땅히 애도받아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기 때문이다.

설정식의 <진혼곡>이 수행하는 애도 정치성은 앞선 상해 시편들과 식

56) 김홍식, 앞의 글, 210-211쪽.

민지 시기의 시편들과 비교할 때 결정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상해 시편들 중 이광수의 시편들이 검열의 바깥에서 학살의 죽음들을 가시화하려는 시적 시도였다면, 설정식의 <진혼곡>은 해방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조건 위에서 25년 전의 죽음들을 소급하여 재정립하려는 시적 시도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시간적 거리가 아니라 애도 정치의 질적 변환을 함축하고 있다. <진혼곡>은 해방된 공론장 안에서 식민 지배의 정치적 주체와 식민지 자본의 공모자를 직접 명명하고 학살의 구조적 원인을 반복적인 리듬 속에 새겨 넣는다. 더 나아가 이 시는 해방 공간에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민족 공동체의 윤리적 토대에 대한 질문을 내포하며 이중 책임의 귀속을 보여준다. 하나는 식민 지배를 가능하게 한 외부의 제국주의적 침략이고, 다른 하나는 “팔아먹은 자”인 내부의 공모자에 대한 비판이다. 이 내부 비판은 해방 공간의 정치적 맥락과도 공명하며 민족 문제와 역사적 현실에 대한 시적 개입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진혼곡>은 25년 전 도쿄에서 “짐승의 밥이 된” 사만생령의 죽음을 해방된 현재의 공론장으로 소환함으로써 공동체에게 공유된 상실에 대한 기억을 환기한다. 그 상실이 ‘조국 주권’의 부재라는 구조적 원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반복적으로 고발함으로써, 해방된 민족 공동체가 다시는 그 주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명제를 새겨넣는다. 그런 의미에서 ‘진혼(鎭魂)’은 죽은 자의 혼을 진정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그들을 죽게 한 구조적 원인의 명명과 고발을 의도하고 있다. 이것이 <진혼곡>이 단순한 추모시를 넘어 애도의 정치학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5. 결론

본 논문은 간도참변과 간토대진재라는 민족 제노사이드가 일어난 두 사건에 대한 시문학의 대응을 분석하였다. 두 사건의 희생자들은 식민지법 질서 안에서 ‘별거벗은 생명’으로 처리되었고, 그 죽음은 제국의 공식 담론이 부과한 프레임 안에서 ‘애도 불가능한 것’으로 봉인되었다. 이 논

문에서 분석한 시편들은 각기 다른 발화 조건에서 이 봉인을 해제하려는 언어적 실천이었다. 검열 바깥의 망명지인 상해에서의 직접적인 호명, 검열 아래 식민지 내부에서의 굴절된 재현, 해방 공간에서의 소급적 재정립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애도 불가능한 죽음들을 언어 안으로 끌어들이는 양상들을 분석하였다.

이 시편들은 단순히 애도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애도의 조건 자체를 문제화한다. 감정의 과잉처럼 보이는 탄식은 재현 불가능성 또는 언급 불가능성 앞에서 겪는 언어 자체의 위기이기도 하다. 호명할 수도 매장할 수도 없는 죽음의 원인을 언어의 층위에서 위태롭게 재현함으로써, 이 시편들은 그 구조적 폭력이 언어에도 관철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언한다. 해방 이후 그 죽음을 공론장으로 소환한 소급적 애도는 그 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명명하고 고발한다. 이 시편들은 단순한 애도의 수행에 그치지 않고 애도가 불가능한 조건에 맞선 언어의 실천이며, 바로 그 흔적 안에 정치적 의미가 새겨져 있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독립신문』(상해판)

『개벽』

『조선문단』

김동환, 『국경의 밤』, 한성도서, 1925.

_____, 『승천하는 청춘』, 신문학사, 1925.

설정식, 『제신의 분노』, 신학사, 1948.

<논저>

강덕상, 『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 김동수·박수철 옮김, 역사비평사, 2005.

_____, 「학살을 다시 생각한다, 계엄령이 없었다면」,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편, 『제노사이드와 한국근대』, 경인문화사, 2009.

강성현, 『다시, 제노사이드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24.

광명숙, 「상해 망명 시절 이광수의 시가 연구」, 『춘원연구학보』 16, 춘원연구학회, 2019, 49~76쪽.

권보드레, 「관동대지진, 소문과 증언과 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71, 한국현대문학회, 2023, 199~244쪽.

김홍식, 「관동대진재와 한국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29, 한국현대문학회, 2009, 175~220쪽.

서민교, 『근대 일본의 침략전쟁과 제노사이드』, 동북아역사재단, 2023.

이동순, 「상해판 독립신문 수록 시작품의 분석」, 『민족시의 정신사』, 창작과비평사, 1996.

이진희, 「관동대지진을 추도함-일본 제국의 ‘불령선인’과 추도의 정치학」, 박선경 옮김, 『아세아연구』 51(1), 아세아문제연구소, 2008, 53~94쪽.

장세운, 「간도참변(경신참변)의 실상과 역사적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 2005, 1~42쪽.

_____,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에 대한 『독립신문』의 보도와 그 영향」, 『사립』 46, 수선사학회, 2013, 295~325쪽.

최호근, 『제노사이드: 학살과 은폐의 역사』, 책세상, 2005.

황호덕, 「재난과 이웃, 관동대진재에서 후쿠시마까지: 식민지와 수용소, 김동환의 <국경의 밤>과 <승천하는 청춘>을 단서로」, 『일본비평』 7, 서울대 일본연구소, 2012, 36~328쪽.

- 알렉스 머레이,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김상운 역, 엘피, 2018.
-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박진우 역, 새물결, 2008.
- 주디스 버틀러, 『전쟁의 프레임들: 삶의 평등한 애도가능성을 향하여』, 한정라 역, 한울아카데미, 2023.
- _____, 『위태로운 삶: 애도의 힘과 폭력』, 윤조원 역, 필로소픽, 2018.

Abstract

Memory of Ethnic Genocide and the Politics of Poetic Mourning
- Focusing on the Gando Massacre and the Kanto Earthquake Massacre

Kwak, myoungsuk
(Ajou University)

The Gando Massacre(1920) and the massacre of Koreans during the Great Kanto Earthquake(1923) were organized colonial violence against Koreans as an ethnic group. Within the law and language of empire, the victims of both events were rendered unmournable, their deaths sealed as unrecordable by official imperial discourse. Drawing on the concept of “bare life” and the theory of “grievability”, this paper analyzes the political agency of Korean poetry across three conditions.

Poems from the Shanghai exile space named Gando victims beyond colonial censorship, granting linguistic presence to deaths the empire refused to record. Representations of the Kanto massacre within colonial Korea were doubly constrained by censorship and victim-blaming discourse, producing refracted mourning. Post-liberation poems retrospectively reframed the massacre as a structural consequence of colonial domination, transforming mourning into political critique. These poems thus reconstitute the unmournable as grievable, beyond mere nationalist sentiment.

Keywords: genocide, bare life, grievability, Gando Massacre, Kanto Earthquake massacre, retrospective mourning, counter-framing, Yi Gwang-su, Kim Dong-hwan, Yang Ju-dong, Seol Jeong-sik

40 한국학연구 97

곽명숙

소 속: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cittern@ajou.ac.kr

논문투고일 2026. 05. 19 / 심사완료일 2026. 06. 14 / 게재결정일 2026. 06. 14